

미이케 교도소 터

1883년, 일본 정부는 국영 미이케 탄광에서 노동하도록 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해 미이케 교도소를 건립했습니다. 이러한 형태로는 일본 최초로 지어진 교도소였습니다. 교도소는 최대 2,0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었는데, 1897년에는 그 수가 2,16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수감자 대부분은 형기가 긴 중죄인이었고 석탄 채굴 경험이 없었습니다. 미이케 교도소는 1931년에 폐쇄되었습니다.

교도소가 폐쇄된 후 미쓰이 그룹은 기술학교 부지로 사용하고자 해당 부지를 사들였습니다. 교도소 건물은 달갑지 않게 암울한 과거를 상기시킨다는 점 때문에 철거되었습니다. 남아 있는 것은 학교 운동장 한쪽에 있는 벽돌과 돌로 된 600m 길이의 벽뿐입니다. 후쿠오카현은 이 벽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. 이 학교는 1953년에 후쿠오카현 미이케 공업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.

1990년대에 신축 건물을 짓는 동안 교도소 건물의 토대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. 그 후에 이어진 발굴 조사와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벽돌 토대, 변기, 다양한 유물과 죄수들이 굴을 파서 탈옥하지 못하도록 벽 아래에 수직으로 묻혀 있던 일련의 석판도 발견되었습니다.